

A Factor Analysis on Tourism Satisfaction through Expected Effects on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and Tourism Development Policy

Rack-In Choi*

Abstract

By November 2017, the number of overseas travelers of the Korean nationals reached a cumulative total of 2,409,155, bringing about 26 million overseas travelers. For Korea's future growth and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make the country much more attractive than now, an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tourism field and attract the people of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atisfaction of tourism policy and to utilize it in the development of tourism policy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of the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tourism development policy in Korea. The policy that can achieve the policy purpose pursued by the regional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future regional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policy plan were suggest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actors related to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such as policy factors, development factors, management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Local tourism development policies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factors related to tourism policy expectation, regional characteristics,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and enterprise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protection of companies and rationalization of tourism related regulations in relation to the opening and expansion of the global tourism market scale.

▶ Keyword: Overseas travelers, Tourism policy,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Tourism policy expectation, Global competitiveness

I. Introduction

2017년 11월까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자는 누적 2,409만 1,505명을 달성하게 되어 해외여행자 2,600만 명 시대에 한 발짝 다가섰다.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 11월 발표한 한국 관광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1월 출국자 수는 2016년 연간 출국자 수 2,238만 3,190명 대비 7.6% 증가한 2,409만 1,505명이었다. 출국자 수는 2013년 1,484만 6,485명, 2014년 1,608만 684명, 2015년 1,931만 430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1].

아웃바운드에서의 폭발적인 실적과 다르게 인바운드 여행 실적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북핵 리스크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입국자 수는 1,220만 1,6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했다. 특히 사드 보복과 관련된 최고의 긴장감을 보였던 11월, 중국에서만 42.1%의 방한 외래객이 줄며 감소세를 나타냈다[2].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경제 규모의 증대로 국민들의 여행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특가 판매 등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해외여행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관광 수지 개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및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나라를 지금

• First Author: Rack-In Choi, Corresponding Author: Rack-In Choi

*Rack-In Choi (zzangchoi@sungkyul.ac.kr), Dept. of Tourism Development, Sungkyul University

• Received: 2018. 01. 18, Revised: 2018. 02. 05, Accepted: 2018. 02. 26.

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나라로 만드는 노력과 함께 국내 관광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더 높여서 세계인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관광자원개발과 관광개발정책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후, 실증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관광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관광정책 개발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of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Policy

1.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역관광을 진흥시킬 수 있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 정책은 소비시장의 변화와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의 확산, 주민의 의식 증대와 같은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지역 관광자원개발 정책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3]. Sharpley와 Telfer(2002)는 관광개발을 경제적 개발, 지역개발, 지역사회개발, 인적자원개발, 사회-문화적 개발, 환경개발 등 관광개발을 통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은 물론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4]. 관광자원개발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관광객체와 매체인 서비스를 신규공급 및 강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신규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기존자원의 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자원 특성을 고려한 관광편의를 증진하고 관광객의 유치 및 소비증대를 촉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5]. 관광자원(tourism resources)은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 동기나 관광의욕을 갖도록 하는 목적물로서 유형·무형의 관광대상을 말한다. 관광자원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관광객에게 매력성과 유인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광자원은 관광산업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관광객에 있어서는 관광의 목적물인 관광대상이 된다[6]. 최근 지역관광개발 정책의 경향을 보면 무엇보다도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외래객 유치증진을 목적으로 특히 국제회의와 여행유치 및 각종 축제, 문화행사, 스포츠행사 개발에 주력하고 국민소득 및 여가 증대에 따른 국민 여가선용 대책으로 점차 국민관광시설과 건설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7]. 지역관광개발이 향후 선진적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관광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하고, 정책의 수립방향을 외래객유치, 국민관광 확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국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해외 여행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개발에 주력하여야 하고 사회정책차원에서 국민관광의 촉진과 보급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관광개발을 추진해야 한다[8].

2. Tourism Development Policies

관광정책(Tourism Policy)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

기관에서 관광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책을 말한다[9]. 관광정책은 목표지향적인 성격을 갖으며 동시에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관광정책은 실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관광정책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적 접근을 시도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대응적 특성을 갖고 있다. 관광정책은 관광 진흥을 조성하고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 지도하고 규제 감독하는 정책으로 나누고 그 대상에 따라 국내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실시하는 국민관광정책과 국제관광의 진흥을 위한 국제관광정책으로 분류한다. 특히 지역관광정책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 관광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관광객에게는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공유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정책은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디지털 기술변화의 중요성과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지역관광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하여야 한다[10].

본 연구에서는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여가 공간 제공과 지역 관광개발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광자원개발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관광정책을 고려하여 기대효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구조방정식을 기초로 하여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같이 지역 관광자원개발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미래의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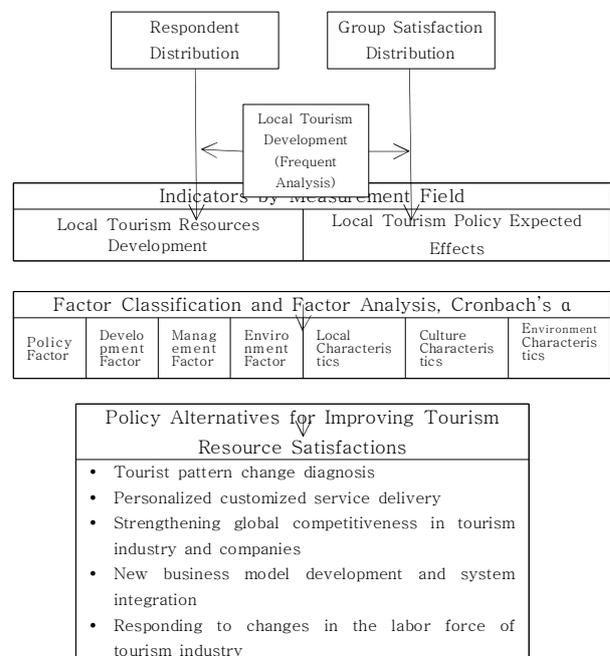


Fig. 1. Research Frameworks

III. Measurement and Research Design

1. Indexes for Measurement

지역관광자원개발이란 지역자원을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로서, 관광개발(tourism development)을 통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공급 또는 강화시키는 과정 또는 상태라 할 수 있다 [11].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지역관광 개발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관광개발에 미치는 Sharpley와 Telfer(2002)와 OECD(2016)가 제시한 지표와 관광자원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과 김향자(2016)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변수를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 개발의 영향 요인을 4개 요인과 지역 관광자원 개발 정책 기대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3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 관련 변수를 도출하여 설문문을 구성하였다[12]-[15]. 이들 변수들에 대한 질문문항의 형식은 주로 폐쇄형 질문문을 사용하였으며, 설문문항은 리커트의 5점 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항목을 개발하였다. 설문지 배포, 수집 및 분석과정을 통해 측정 항목들이 몇 개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관광만족도와 관련한 지역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정책에 대한 기대효과와 관련된 항목으로 제시된 측정지표에 관해 16개 문항과 지역관광정책에 관한 기대효과에 대해 15개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설문문 모두 “각 질문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의 형식을 취하여 구성하였고 효과적인 관광만족도에 관한 요인분석을 위한 질문지의 구성은 표 1과 같이 그 변수를 개념화하였다.

2. Deduction of Hypothesis

본 연구에서는 지역관광자원개발과 지역관광정책이 관광만

족도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 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먼저 지역관광자원개발 중에서 하위차원의 4 가지 요인이 지역관광자원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4가지 가설(Hypothesis)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정책요인은 지역관광자원개발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2. 개발요인은 지역관광자원개발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3. 관리요인은 지역관광자원개발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4. 환경요인은 지역관광자원개발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관광정책의 3 가지 하위차원 요인인 지역특성과 문화특성, 환경특성이 지역관광정책에 어떠한 관계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지역특성은 지역관광정책에 하나의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문화특성은 지역관광정책에 하나의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환경특성은 지역관광정책에 하나의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역관광자원개발과 지역관광정책이 관광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 지역관광자원개발은 지역관광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지역관광정책은 지역관광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Table 1. Measurement Valuables & Indicators

Valuables	Scale score ① Not at all ② Yes ③ Normal ④ Yes ⑤ Very agree
Local tourism resources development impacts valuable (16)	
var.1	관광자원 개발의 정책적 추진
var.2	내·외국인 관광객 방문 증가
var.3	지자체의 관광자원개발 추진
var.4	정부 부처별 지역관광사업 협력
var.5	지자체 관광자원개발 요구 수용
var.6	지역 특성화 관광사업 개발
var.7	지역관광 전문가 육성, 교육
var.8	관광시설 운영관리 조직 및 시스템개선
var.9	대규모 관광교통체계 연계개발, 기반시설 개선
var.10	전문 공무원 및 민간 우수인력 확대, 육성
var.11	지역관광과 관련된 법체계, 제도 정비
var.12	지역관광개발 민간 투자 확대
var.13	지역관광지 지정권한 지자체 이양
var.14	지역관광 사업성 고려
var.15	지역주민 참여 확대
var.16	지역 환경 훼손 고려 개발, 환경 보존
*김향자(2016), 이혜주(2014) 등 지역 관광자원개발의 영향 연구를 바탕으로 요인 중에서 16개 변수 도출	
Local tourism policy expectation effect variable (15)	
var.17	지역 대표 관광자원 육성
var.18	지역 특성 고려 관광자원 개발
var.19	일자리 창출, 지역관광 인력 양성
var.20	지역특성 고려 지역관광 개발
var.21	경제·사회·문화·환경의 균형성장 관광정책
var.22	지역 균형 발전, 소득 균등한 분배
var.23	지역 관광정책 추진 역량 강화, 증대
var.24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var.25	지역 자본과 지역 인력의 주도적 참여
var.26	지역밀착형 창조인재 양성 강화
var.27	지역이미지 개선
var.28	문화재생형 새로운 관광 공간 창조
var.29	지역 전통, 고유 민속 문화 발전기여
var.30	지역 교통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var.31	지역 자연환경 보존 및 관광 환경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미래관광발전포럼(2017), 관광진흥 중장기정책 방향(2018-2022); 김향자(2016), 지역 관광자원개발방향 연구; 최자은·김향자(2014),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의 체계적 추진방안;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포럼(2014), 세미나 자료집; 김성진·박주영(2013), 관광개발사업의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등에서 15개 변수 도출	

3. Data Collections

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측정 수집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초부터 11월말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조사 수집하였다. 설문자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방법론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의뢰하여 자료 측정과 수집을 위한 일정한 교육용 수료한 학생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하는 자료수집 방법인 집단조사방법을 택하였다. 아울러 응답내용이 미비한 설문지에 대해서는 피조사자와의 면접을 통하여 설문조사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임의표본추출방식을 취하였으며, 그 지역으로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하여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처음 약 한달 간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비교적 설문 응답에 대한 회수율이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약 1개월의 조사 기간이 더 소요되었다. 따라서 전체 45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나 297개(66.0%)를 회수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자 분포 특성은 표 2와 같다.

Table 2. Demographic Profile of Respondents

		Number(x)	Rate(%)
Gender	male	108	36.0
	female	189	64.0
Age	20's	145	48.8
	30's	75	25.3
	40's	48	16.2
	over 50's	29	9.7
Job	student	119	40.1
	businessmen	90	30.2
	self-employed	32	10.8
	housewife	35	11.8
	etc.	21	7.1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5	1.7
	high school	206	69.4
	university	79	26.6
	graduate school	7	2.3
Foreign travel	yes	197	66.3
	no	100	33.7
Domestic travel	almost	39	13.1
	often	94	31.7
	frequently	164	55.2
Total		297	100

IV. Data Analysis

1. Reliability Analysis

설문조사 후 응답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먼저, 회수된 설문지 총 297부를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을 하기 위하여 표본 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을 위하여 각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먼저 실시하였다. 관광정책 만족도와 관광개발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측정 요인들을 각각의 공통된 요인으로 묶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SPSS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종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관측된 변수들을 근거로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변수들을 몇 개의 개념 또는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변수들의 내용을 단순화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의 각각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결과를 통한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응답에 대한 평균을 보면 관광자원 개발 정책적 추진(3.55), 내외국인 관광객 방문 증가(3.37), 지자체 관광자원 개발 추진(3.43), 정부 부처별 지역관광사업 협력(3.65), 관광자원 개발의 지역 요구(3.45), 지역 특성화 관광사업 개발(3.47), 지역관광 전문가 육성(3.10), 관광시설 운영관리 조직 및 시스템 개선(2.87), 대규모 관광교통체계 및 기반시설 개선(3.13), 전문 인력의 확대 육성(3.67), 지역관광 관련제도 정비(3.27), 관광개발 민간 투자 확대(3.15), 관광지 지정권한 지자체 이양(3.25), 관광 사업성에 대한 고려(3.44), 지역주민의 참여(3.33), 환경 훼손 고려(3.33)는 약간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정책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 평균을 보면 지역 대표관광자원 육성(3.26), 지역적 특성 고려 관광자원 개발(3.34), 일자리 창출 및 지역관광인력의 개발(3.42),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관광 개발(3.76), 경제·사회·문화·환경의 균형적 고려(3.72), 지역 균형·균분 정책(3.37), 지역의 관광정책 추진 역량 강화(3.51),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3.20), 지역 자본 및 인력의 주도적 참여(3.57), 지역 밀착형 창조인재 양성 강화(3.66), 지역이미지 개선(2.90), 문화재생형 새로운 관광 공간 창조(3.64), 지역 전통 및 고유 민속 문화 발전(3.76), 지역 교통체계 및 생활환경 개선(2.79), 지역 자연환경 훼손(2.68)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 항목의 평균은 3.34와 3.37로 관광자원개발 만족도와 관광정책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부분 많은 주민들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자원개발 만족도와 관광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 16개와 15개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크론바하의 알파 값(α)을 일반적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알파계수를 통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α)값은 0에서 1을 가지며, 그 값이 .60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인정한다.

표 3에서 설문문항 16개와 15개의 알파 값은 .60 이상이고, 각각의 알파 값이 .914와 .861로 대부분 설문문항은 측정항목을 제외한 알파 값이 이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제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변수들은 신뢰도가 높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2. Correlation Metrics Analysis

변수들 간의 상관행렬 분석에서는 먼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였는데 변수들 간에 적절히 높고 낮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몇 가지의 공통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각각 상관행렬의 행렬식은 1.79E-005와 .007로 나타났다.

상관행렬표에 제시된 변수간의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수준은 보통 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5%의 의미는 유의확률이 .05 보다 크면 상관계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상관관계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모두 .000 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연구가설이 채택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각각 16개와 15개의 변수들 간에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둘 다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Questions	scale average if item's deleted	scale distribution if item's delete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2)	alpha if item's deleted(α)
var1	49.90	76.349	.670	.659	.913
var2	50.08	75.888	.690	.692	.913
var3	50.03	76.196	.701	.617	.913
var4	49.81	76.380	.732	.663	.912
var5	50.01	75.485	.711	.625	.912
var6	49.98	75.979	.698	.601	.913
var7	50.35	76.065	.523	.420	.918
var8	50.58	77.553	.485	.370	.919
var9	50.33	80.492	.285	.216	.925
var10	49.79	81.199	.259	.259	.925
var11	50.19	74.931	.683	.719	.913
var12	50.30	74.808	.695	.738	.912
var13	50.20	75.247	.689	.717	.913
var14	50.02	73.868	.742	.753	.911
var15	50.12	74.322	.748	.714	.911
var16	50.12	73.935	.739	.707	.911
N of Cases = 297, N of Variables = 16, Alpha = .920					
var17	47.33	40.441	.544	.358	.817
var18	47.24	42.302	.374	.235	.827
var19	47.17	41.596	.493	.421	.821
var20	46.83	41.943	.446	.363	.823
var21	46.87	40.431	.573	.459	.815
var22	47.22	39.639	.602	.547	.813
var23	47.08	39.756	.592	.551	.814
var24	47.39	37.880	.593	.459	.813
var25	47.02	39.382	.564	.407	.815
var26	46.93	39.888	.596	.488	.814
var27	47.69	44.395	.129	.208	.844
var28	46.95	42.673	.401	.316	.826
var29	46.82	41.476	.550	.449	.818
var30	47.80	41.493	.444	.317	.823
var31	47.91	45.657	.027	.224	.850
N of Cases = 297, N of Variables = 15, Alpha = .832					

아래의 표 4에서 유의확률은 모두 .000($p < .001$)이므로 변수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들 변수 쌍들 간의 상관관계를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하는 Kaiser-Meyer-Olkin 측도는 측도의 값이 적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하다. 여기에서는 각각 .914와 .881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우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검정치(Sphericity)는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16개와 15개의 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의 검정치는 3157.122와 1410.445로 나타나고 이 때 유의확률은

3. Factor Analysis Results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처음, 회전하지 않은 요인분석을 시행하고 각 요인에 대해 높은 적재치의 변수를 최소화하는 회전방법 중에서 직교회전 방식인 베리맥스(Varimax)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유치(eigenvalue)의 변화를 도표로 표시하여 시각적 판단을 제공하는 스크리(Scree)도표를 통해서 고유 값 1 이상인 성분을 각각 4개, 3개를 추출할 수 있다.

그림 1의 스크리 도표에서 세로축은 고유 값을, 가로축은 성분(요인)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는 16개와 15개의 요인을 고유 값의 크기순을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 나타낸 것으로 4개와 3개의 요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개와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고유치는 줄어들게 되고 가로축과 평행을 이루기 직전까지의 요인을 추출하게 된다. X축과 평행한 5요인에서 16요인까지, 4요인에서 15요인까지는 요인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 표 3에서는 이러한 요인분석의 총 분산으로서 초기 고유 값과 적재 값을 나타내고 있다. 추출된 4성분(요인)의 고유치는 각각 7.796, 1.704, 1.151, 1.033으로, 3성분(요인)의 고유치는 각각 5.070, 1.721, 1.362로써 이들은 요인추출 기준으로 지정한 고유치 1이상인 요인들만 각각 추출된 것이다.

아래의 표 5에서는 관광자원개발 만족도와 관광개발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들의 각 항목별 요인 적재치 성분행렬을 주성분 분석을 통해 구했으나, 이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다소 부족하거나 희미한 경우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회전을 실시하여 보다 뚜렷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데, 회전하는 방법 중에서 직교회전 방법을 그 중에서 베리맥스법에 의해 3차례의 반복계산으로 얻어진 회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5의 결과에 따르면 관광자원개발 만족도 16개의 변수는 4개의 요인으로 뚜렷하게 추출되었고, 관광정책에 대한 기대효과 15개의 변수는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통상 적재치의 크기는 .5이상이 바람직하나 .4이상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요인들이 결정된다.

관광자원개발 만족도 요인 1은 설문문항 var2, var1, var3, var4, var5, var6으로 이를 명명하여 '정책요인(Policy Factor)'이라는 공통된 범주로 묶을 수 있고, 요인 2는 var11, var13, var14, var12, var16, var15로 명명하여 '개발요인

Table 4. KMO & Bartlett certification

Kaiser-Meyer-Olkin Measure		.861	Kaiser-Meyer-Olkin Measure		.914
Bartlett's sphere formation test	approximate χ^2	1410.445	Bartlett's sphere formation test	approximate χ^2	3157.122
	d/f	105		d/f	120
	significance probability	.000***		significance probability	.000***

*** $p < .001$ (confidence level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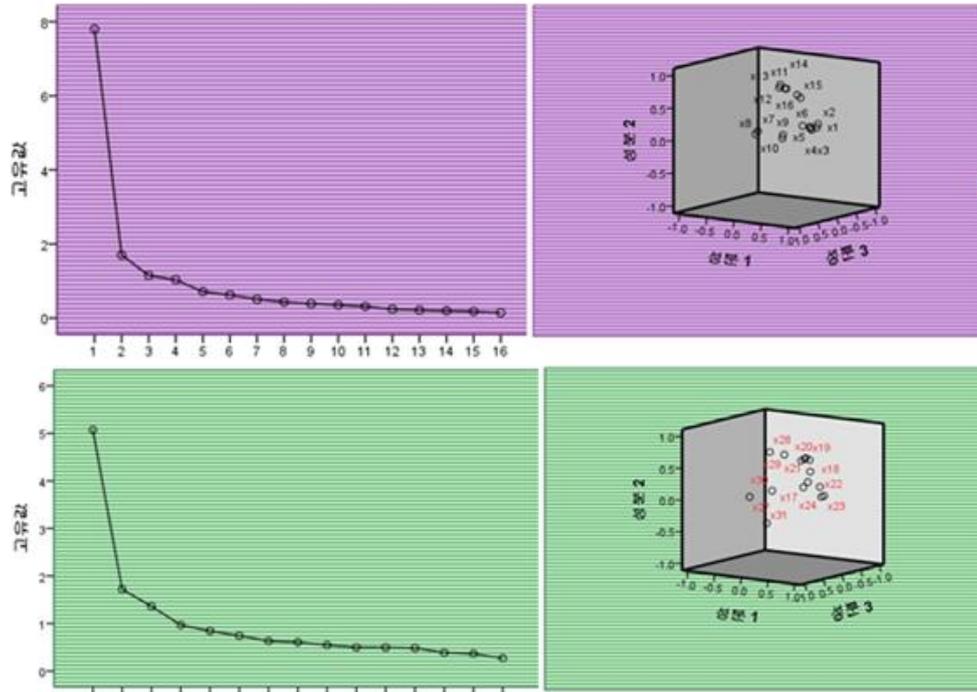


Fig. 2. Scree Plot and Composition diagram of the spinning spaces

Table 5. Rotated component matrices

	component					component		
	1	2	3	4		1	2	3
var2	.809	.301	.069	-.013	var23	.827	.111	.075
var1	.796	.246	.083	.060	var22	.815	.103	.134
var3	.770	.226	.176	.180	var24	.729	.236	.048
var4	.759	.251	.198	.234	var17	.565	.246	.260
var5	.748	.271	.184	.169	var25	.518	.452	.006
var6	.659	.286	.256	.214	var18	.418	.267	-.071
var11	.155	.849	.121	.209	var28	-.064	.739	.258
var13	.214	.824	.231	.004	var29	.179	.717	.217
var14	.303	.818	.216	.000	var21	.383	.641	-.070
var12	.279	.802	.139	.023	var26	.383	.618	.053
var16	.449	.717	.097	.017	var20	.280	.602	-.179
var15	.504	.678	.093	.015	var19	.367	.593	-.193
var8	.194	.195	.827	.085	var27	-.094	.100	.757
var7	.229	.242	.814	.056	var30	.274	.223	.681
var10	.152	.016	.063	.809	var31	.144	-.308	.633
var9	.155	.067	.053	.795				

* Factor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 6 Factor rotation converged in iterative calculations

(Development Factor)’으로, 요인 3은 var8, var7로 명명하여 “관리요인(Management Factor)’으로, 요인 4는 var10, var9로 명명하여 ‘환경요인(Environment Factor)’이라는 공통된 범주로 묶을 수 있다.

관광정책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요인 1은 var23, var22, var24, var17, var25, var18로 이를 명명하여 ‘지역특성 (Regional Characteristics)’이라고 하였다. 요인 2는 var28, var29, var21, var26, var20, var19로 ‘문화특성(Cultural Characteristics)’이라고 하였다.

요인 3은 var27과 var30, var31로 명명하여 환경특성 (Environment Characteristics)’이라는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4 개의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자원개발과 관련된 응답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는 각 요인에 속한 변수의 공통점을 발견하여 관광자원개발 만족도에 대한 4가지 요인을 찾아 각각 ‘정책요인’, ‘개발요인’, ‘관

리요인’, ‘환경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관광정책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3가지 요인을 추출하여 각각 ‘지역특성’, ‘문화특성’, ‘환경특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따라서 앞 3장에서 세운 7 가지의 가설은 이러한 요인분석을 기초로 할 때 지역관광자원개발에는 정책요인과 개발요인, 관리요인 그리고 환경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특성과 문화특성 그리고 환경특성은 지역관광정책에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설 8과 가설 9는 그림 2에 나타나는 구조방정식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요인’, ‘개발요인’, ‘관리요인’, ‘환경요인’들은 요인평균 3.34로 관광 자원개발에 대해 평균 이상으로 정(+)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지역특성’, ‘문화특성’, ‘환경특성’은 요인평균 3.35의 꽤 높은 수준의 관광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속변수인 관광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은 각각 관광만족도라는 종속변수에 평균 3.34의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인과 그에 관련된 요소변수들은 향후 관광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관광자원개발과 지역관광개발정책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 관광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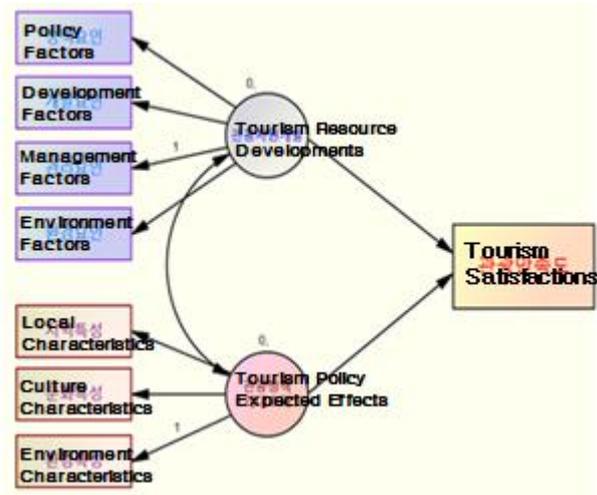


Fig. 3. Structural Equation for Tourism Satisfaction

V. Conclusions

본 연구조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관광개발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광자원개발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가설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관광자원개발의 4 가지 요인과 지역관광정책의 3 가지 요인들이 관광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에 대한 구조방정식을 기초로 지역관광자원 개발이 추구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과 미래의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개발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먼저, 관광자원개발 관련 요인들 정책요인, 개발요인, 관리요인, 환경요인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광정책 기대효과 관련 요인들 지역특성, 문화특성, 환경특성을 고려한 지역관광개발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최근 2년간 소셜포털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및 관광부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제시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2017-2018 여행트렌드는 START, 즉 S(Staycation), T(Travelgram), A(Alone), R(Regeneration), T(Tourist sites in TV programs)으로 요약할 수 있다[16].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객 패턴변화를 정확히 진단하여 플랫폼 연계를 통한 개별화된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계 관광시장규모의 개방과 확대와 관련하여 기업의 보호와 관광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하여 관광산업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창업과 관광서비스 유통구조 전환, 기술혁신과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교통, 숙박 등 개별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시스템 통합을 가속화하여야 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 기반으로 인한 자동화 구현으로 전통 관광산업의 노동인력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한계점으로는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표본추출에 대한 대표성을 최대한 높이려 하였으나, 표본오차를 최소화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석과정에서도 빈도 분석, 신뢰도분석 과 요인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살펴해보았으나, 향후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회귀분석 등을 시행한다면 보다 디테일하고 세련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Tour Korea, "Domestic overseas travel forecast of around 26 million this year", <http://www.tournews21.com/news/>, 31th, Dec. 2017.
- [2] Travel Bike News, "Statistics of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Departure of 2.409 million by November", 26th, Dec. 2017.
- [3] Department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uture Tourism Development Forum(2017), "Long-term Policy Direction of Tourism Promotion(2018-2022)", 2017.
- [4] Sharpley, Richard and Telfer, David, "Tourism and Development: Concepts and Issue", Clevedon: Channel View Publication, pp.11-25. 2002.
- [5] Gartner, W., "An integrated tourism development project: The central region of Ghana", International Tourism Conference on Urban and Regional Tourism, Vol.1 No.-, pp.251-260, 1996.
- [6]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Tourism development", <http://terms.naver.com/>, 2017.
- [7] Sung-Tae Kim, "Analysis on Local Residents' Conflict Structures in the Process of Tourism Development Project : Focusing on a failure case on a tourism and leisure enterprise city in Muju", Journal of Tourism Enhancement, Vol. 1, No. 1, pp.3-20, Dec. 2013.
- [8] So-Ra Jun, Bong-Hyun Jung, "A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Suitability of Local Tourism Development", Korea Regional Development Society Conference, Vol. 14, No. 4, pp.403- 422, Nov. 2016.
- [9] Do-young Kim, Hwan-suk Chris Choi, May Aung, "The Makers and Networks of Tourism Policy for Smart Tourism Development in Korea = The Makers and Networks of Tourism Policy for Smart Tourism Development in Korea",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Vol. 80, No.-, pp.1020-1030, 2016.

[10]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7 Outbound Status and Tread Investigation", pp.4-17, Nov. 2017.

[11] Un-Il Baek, Sung-Woo Shim, In-Hwan Cho, Tourism Development, Daewangsa, pp.29-41. 2014.

[12] Sharpley, Richard and Telfer, David, "Tourism and Development: Concepts and Issue", Clevedon: Channel View Publication, pp.13-36. 2002.

[13] OECD,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16, 2016.

[14]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Regional Tourism Resources II : Policy suggestion", pp.251-257. Nov. 2017.

[15] Hyang-Ja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Local Tourism Resources I, II, " Korea Tourism Organization, pp.207-218. July 2016.

[16] Korea Tourism Organization, Press Releases, "The 17/18 travel trend looking at with Big Data is S. T. A. R. T.", Computers & Security, pp.1-5, Dec. 14th. 2017.

Authors



Rack-In Choi
 Feb. 1986 : Kookmin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Political Science Bachelor)
 Feb. 1991 : Yonsei University, Public Administration (Maste of Public

Adminstration)
 Feb. 1999 : Kookmin University, Public Administration (Ph.D of Public Adminstration)

Mar. 2003 ~ : Sungkyu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ourism Development

Interests: tourism development, tourism policy,
 tourism administration, tourism research,
 social research methodology,
 statistical analysis and quantitative analysis,
 lifelong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e-learning, u-learning, information security